

# 국산 쌀 원료 역대 소득

### 시선 잡는 ‘딸기모찌’·물만 부어먹는 ‘오곡 누룽지차’ 등 지역 대표상품 우뚝...“K-과자 수출효자품목으로 육성”

최근 쌀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쌀을 원료로 독특한 가공식품을 개발, 역대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과자나 빵, 맥주 등은 수입산 밀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역 유·무형 자산과 원료를 다른 농·특산물과 융합하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해양생태 관광지인 여수에서 ‘딸기모찌(찰쌀떡)’를 운영하는

김지나 대표는 연간 32t(1억원)의 국산 찰쌀과 지역에서 생산한 새콤달콤한 딸기를 이용해 딸기를 품은 찰쌀떡을 생산, 연간 20만 상자를 판매하며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여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대표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수 있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주문도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딱딱해서 끊어 먹는 누룽지의 재탄생



도 화제다. 순천 농업회사법인 ‘쌍지들’은 현미와 찰쌀, 흑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오곡 누룽지차’를 개발했다. 끓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점 때문에 여행객이나 나홀로 가구에 식사 대용으로 인기리에 판매돼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해옥 쌍지들 대표는 “유기농쌀에 절

은 세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입힌 ‘버섯 현미초코볼’, ‘블루베리현미초코볼과자’를 개발 중이며 내년에는 수출 시장에도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연간 20t)만을 고집하며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업체도 있다.

장성 ‘올바름’(대표 김정광)은 유기농

#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쌀 90% 이상이 함유된 ‘고소한롱키’, ‘과과자’, 양파떡, 고구마떡 등 20종을 생산, 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올바름(www.allbarm.kr)’과 수출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과밍하우스’ 강준구 대표는 30년 경력의 빵 전문가로 2007년부터 100% 국산 쌀을 연간 3t, 우리 밀 10t 등을 이용해 쌀 케이크, 롤빵, 쌀과자 등 식사 대용식 10종을 생산하고 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2만여명이 방문하는 농촌융복합 성공 모델을 구축했다.

쌀로 만든 맥주로 MZ 세대의 눈길을 끄는 곳도 있다. 담양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여담주농조합법인’(대표 김형락)은 2016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담양

산 친환경쌀을 이용해 목 넘김이 좋은 맥주를 개발했다. ‘담주브로이’라는 브랜드로 특산물 판매장과 수도권 맥주점 등에 대나무맥주, 쌀맥주 등을 판매해 연간 2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영암 달빛무화과쌀빵, 나주 배쌀빵, 해남 고구마빵·감자빵 등 쌀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 특화빵도 소화하기 편하다는 장점과 독특한 모양새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갖춘 생산설비 구축과 홍보 및 판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K-과자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담양축협, ‘TMR 사료공장’ 유치 성공

### 50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설립 직접 생산 공급 경영 안정 도모

양축농가의 염원이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 완전배합사료를 생산하는 TMR 사료공장이 담양군에 들어선다.

14일 담양축산협동조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내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강종문(사진) 조합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의 노력

에 담양군의 협력이 더해져 TMR 사료공장 지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담양축협은 국비와 군비 18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6천620㎡ 부지에 월 2천t 생산 규모의 TMR 사료공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양축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TMR 사료공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물론, 2차례의 발표심사와 보완사항 제출 끝에 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2017년부터 추진한 노력이 빛을 봤다.

이에 따라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수입 건조 대체 효과 등 원재료비 절감을 통해 담양 대소규모 한우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종문 담양축협 조합장은 “담양축협 TMR 사료공장은 사료값 급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양축농가에 단비 같은 존재”라며 “1968년 창립 이래 원가에 비해가는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 도농기원, 완도 ‘황칠잎차’ 개발

###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물질 다량 함유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3일 “완도황칠 융복합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젊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황칠잎차’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황칠은 고급 천연 도료로 사용됐으나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 합성 도료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다 최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고 밝혀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연구연구소는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황칠의 소비 촉진을 위해 기능 성분과 기호성이 향상된 황칠잎차와 블렌딩차를 개발해 선보였다.



사를 열어 시장 관계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관광재단에서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쇼핀전시관 전시품목에 선정돼 1박스(40g/2개)에 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재정 기자

## 임곡농협·농어촌공, 농촌발전 업무협약

농협광주본부부는 14일 “최근 임곡농협이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농촌지역 발전·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기재만 조합장, 김윤선 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이 참석했으며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인 맞춤형 사업 매칭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포럼, 세미나 등 공동 개최를 통한 농정 거버넌스 구축 ▲경영 위기 농가 회생 등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발전과 지역 농업인의 복지 향상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너지 창출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협력을 통해 농업인 복지 향상, 농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세 쌍둥이 송아지 탄생 눈길

### 광주축산농협, 조합원에 배합사료 50포 전달

광주축산농협 조합원 박청규·송영순 한우 송아지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5%이며, 세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1%로 극히 낮다. 건강하게 세 쌍둥이가 태어나 생존한 경우는 광주축산농협에서 최초다. 축산농협은 세 쌍둥이 탄생을 축하하고 100일 기념으로 배합사료 50포를 전달했다.

박청규 조합원은 “새로운 생명이 건

넛날부터 길조로 여겨온 만큼 광주축산농협에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좋은 기운을 이어 받아 광주축산농협과 지역 축산농가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3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나 생각지도 못했던 경경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

자연장, 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